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총정의 200일전투

안 희 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 제7차대회가 열리었던 주체 105(2016)년에 우리 당과 인민이 진행한 200일전투는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전민결사전, 만리마의 새시대를 탄생시킨 거창한 창조대전이었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력사의 분수령으로 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설계도를 펼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 총돌격전으로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력사적사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정신을 고수하고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며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첫 해인 주체 105(2016)년에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갈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200일전투를 발기하시였다.

200일전투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당의 구상과 결심은 곧 과학이고 실천이며 승리라는것을 만방에 과시하였으며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자력자강으로 짓부셔 버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200일전투에서는 무엇보다도 온 사회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며 애국의 열정을 바쳐나가기 위한 정치사업이 진공적으로 벌어졌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책동속에서도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에서도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비결은 자력자강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에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시대를 개척하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힘은 인민대중에게 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은 다름아닌 사상의 힘, 정신력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이 당대회가 내세운 전략적로선과 방침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짜고들며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주체105(2016)년 5월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일군련석회의이후 중앙과 도, 시, 군들에 200일전투당지도소조 성원들이 파견되고 중앙지휘부가 조직되었다.

군대와 인민을 200일전투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우선 당 제7차대회의 기본정신과 전투적과업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선동활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이 우리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만리마속도 창조에서 선구자가 되도록 추동하였다.

주체105(2016)년 6월 1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며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에 이어 전국의 모든 도들과 시, 군들에서도 군중대회들이 련이어 진행되었다.

군중대회들에서는 200일전투에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영웅신화들을 창조창출하여 주체조선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나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보여주었다.

당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집중강연선전대활동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었다.

평양시에서는 집중강연선전대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려명거리건설장과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강연선전을 진행하였다. 황해북도에서는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이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 곡산군 평암협동농장, 신계군 백곡협동농장의 별판들에 달려나가 당 제7차대회의 기본정신과 과업들을 대중의 심장에 깊이 새겨주었다. 평안남도에서도 집중강연선전대가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봉천탄광을 비롯한 탄광들에서 로동계급을 석탄증산에로 불러일으켰다.

당조직들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도록 하였다.

직관선동, 방송선전, 학생취주악대와 학생가창대활동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거리와 일터마다에 《모든 힘을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하여!》, 《모두다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를 비롯한 구호들과 《만리마속도창조》, 《자강력제일주의》, 《총궐기, 총매진》 등의 표어, 선전화들, 직관물들이 게시되어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예술단, 예술선전대들도 전투장마다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군대와 인민을 200일전투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또한 령도업적단위들을 전형으로 내세우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선전선동활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평양326전선공장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시켜나가도록 하였으며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평안남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탄광들에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한편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청산리에 풍년이 들어야 온 나라에 만풍년을 안아올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해나가도록 하였다. 평안북도당위원회는 령도업적단위들이 3대혁명수행에서 계속 앞장서나가도록 적극 밀어주었다.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불씨로 하여 다른 단위들에 일반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이다.

주체105(2016)년 6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70일전 투기간 상반기인민경제계획을 전국적으로 제일먼저 수행하여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닌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워주신 천리마를 타고 시대를 주름잡으며 내달리던 전세대들처럼 우리 당이 태워준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 잡고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되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전형단위의 영예를 떨쳐나가기 위한 투쟁과정에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는 2년분, 3년분, 5년분계획완수자들을 포함하여 수백명의 연간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었으며 8월 23일까지 연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200일전투의 나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비롯하여 무산광산연합기업소,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안주뽑프공장, 평양철도국 서평양기관차대,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안변군 천삼협동농장 등 많은 단위들이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었다.

군대와 인민을 200일전투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또한 당원들이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선전선동활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의 심장에서부터 혁명의 불, 투쟁의 불을 지펴올리는것을 당사업의 종자로 틀어쥐고나갔다.

온성지구탄광연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두루봉혁명사적지, 왕재산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당원들의 가슴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깊이 심어주었다.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강화되고 당조직들의 정치사업이 침입식으로 진행된 결과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200일전투에서는 다음으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졌다.

주체105(2016)-주체109(2020)년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에네르기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200일전투기간 우선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전력생산기지들에서는 200일전투에 진입한 첫날부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초병으로서의 사명감을 안고 발전설비들의 대보수를 동시에 진행하여 매일 수십만kWh의 전력을 증산하였다.

이 시기 수력발전부문의 로동계급도 매일 평균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배이상의 전력을 생산하여 대고조전투장마다에 거세찬 활력을 더해주었으며 도, 시, 군들에서 중소형발전소들의 정상운영과 자연에네르기로 전력문제를 해결해나갔다.

함경남도에서 실현한 통합전력관리체계는 전력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보장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 질 좋은 전기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전력생산기지들을 새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져 200일전투기간 금야강군민발전소가 조업식을 진행하고 홍주청년3호발전소, 려성강청년3호발전소들이 완공되어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5(2016)년 12월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헌신과 인민사랑의 체취가 뜨겁게 깃들어있는 발전소의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고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속에서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온 나라의 앞장에 서게 되었다.

200일전투기간 또한 석탄공업과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석탄공업부문에서 200일전투목표를 제일먼저 앞당겨 점령한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5개년전략수행기간 수십여개의 새 구역조업대상과 중요대상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공격전을 전개하였으며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이동식공기압축기를 개발하고 계열생산준비를 다그쳐 굴진성과를 확대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초고전력전기로를 비롯한 전기로들이 만가동하여 일전투목표를 초과완수하였으며 보산제철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전례없는 주체철생산성과를 이룩하였다. 갈탄을 리용하는 새로운 생산방법을 확립한 청진제강소에서 기술적지표들을 더욱 개선한 결과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되었다. 황철과 김철의 로동계급도 결사전을 벌려 200일전투목표를 12월초까지 앞당겨 끝내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두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수송조직을 과학화, 합리화하며 규률을 강화하여 철도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 원활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나갔다. 특히 려명거리건설에 필요한 중요물동수송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200일전투기간 또한 기계, 화학, 건설부문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전투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5(2016)년 8월 어느 한 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만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첨단기계제품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룡성과 라남의 로동계급은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을 늘여나갈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고 금성트랙트르공장에서 80hp트랙트르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계열생산을 위한 전투에 들어갔다.

이 시기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는 75t순환비등층보이라건설공사를 결속하였다.

자력자강의 창조물인 75t순환비등층보이라계통이 일떠선것은 주체비료생산능력을 확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자랑찬 성과였다.

200일전투기간에 삼지연군건설과 려명거리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주체조선의 혁명적의지와 기상을 만방에 떨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5(2016)년 11월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는것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혁명적의무라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간직하고 혁명의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특색있게 꾸리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그리하여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내달리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삼지연군건설장에서 진군나팔소리를 높이 울리였으며 백두산종합박물관 건축공사장과 혜산-삼지연철길건설장들에서는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쳤다.

려명거리건설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치렬한 격전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5(2016)년 3월 현지에 나오시여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면서 려명거리를 21세기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녹색형거리로 일떠세울데 대한 대담한 작전을 펼쳐주시였다.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만장약한 군인건설자들은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17시간동안에 살림집골조를 한층씩 완성하는 놀라운 속도를 창조하면서 돌격전의 앞장에서 내달리였고 황해북도려단, 라선시려단, 황해남도려단, 평안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려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 그리고 전국의 도, 시, 군들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건설장을 찾아왔다.

군민대단결의 거대한 위력, 힘있는 경제선동과 야간지원돌격대원들의 애국적헌신성,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려명거리는 주체106(2017)년 태양절을 맞으며 완공되였다.

한편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천리마건재종합공장, 오석산화강석광산들에서 건재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200일전투기간 또한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부문에서 인민생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5(2016)년 9월 인민군대의 어느 한 농장을 현지도하시면서 새 품종을 육종해낸 과학자, 연구사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농업부문에서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대동강돼지공장을 찾으시여서는 과학적인 축산체계를 확립하며 우량품종의 돼지들을 육종해내기 위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온 나라의 농장들에서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하며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 황금이삭이 설레이게 할 애국의 마음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었다.

세계굴지의 청춘과원, 인민의 과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하여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생산을 정상화하며 지력을 높이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였다.

수산전선에서 물고기대풍, 《이채어경》을 펼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온 나라에 차고넘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운 어로신화를 창조해가고있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수산사업소를 비롯하여 수산사업소들을 련이어 찾으시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도록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수산부문의 어로공들은 황금해력사창조의 앞장에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더 높이 울려갈 충정의 맹세를 다지고 떨쳐나섰다.

남포대경수산사업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단풍》호계렬의 만능어선들뿐아니라 서해에서 처음으로 봉사선까지 무어냈으며 문덕수산사업소에서는 9월말까지 년간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이어 200일전투목표를 승리적으로 돌파하였다.

한편 현대적인 어구종합공장과 어분사료공장이 훌륭히 일떠서 생산에 들어갔으며 평양자라공장이 양식공장의 표준으로 전변되고 순천메기공장건설도 적극 추진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대적인 비누공장을 룡악산기술에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공장이름을 《룡악산비누공장》으로 명명해주시면서 룡악산비누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 우리 당이 완공을 기다리는 공장이라고, 건설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200일전투의 영예로운 참전자, 돌격투사답게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떨쳐나가자고 고무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룡악산비누공장, 룡악산샘물공장, 류경김치공장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에서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추진되었다.

홍건도간석지 1단계건설과 황해남도물길 1단계공사가 완공되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밀천이 마련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200일전투에서는 다음으로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켜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라서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문명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이다.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왔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105(2016)년 9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트용 대출력발동기시험분출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우주정복에로의 넓은 길을 닦아놓았다.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연구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대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고 첨단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무인화된 본보기생산체제, 초고전력전기로용전극생산 기술을 완성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줄기차게 내밀었다.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기술이 성공적으로 확립되고 농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에서는 가치있는 성과들이 발표되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가운데 전국각지에 수십개의 기술고급중학교들이 새로 나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따르는 교육을 여러가지 형태로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단계별목표들을 정확히 세우고 기술고급중학교의 교육강령작성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을 진공적으로 내밀었다.

한편 평양중등학원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학교들의 교육환경이 본보기, 표준으로 되였으며 만경대소년단야영소와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일떠섰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에서 실리있는 교육방법들이 창조되였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에 받들려 훌륭히 건설된 보건산소공장조업식과 류경안과종합병원개원식이 진행되였다. 각지 치료예방단위들에 우리의 첨단설비들이 갖추어지고 의료기구와 의료용소모품들이 공급되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였다.

체육부문에서 여자축구선수들이 국제축구련맹 2016년 17살미만,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것을 비롯하여 국제 및 국내경기들에서 승리의 개가가련 이어 올리였다.

200일전투기간에 창작된 총서 《불멸의 향도》중에서 장편소설 《야전렬차》, 노래 《전진하는 사회주의》, 음악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 예술영화 《우리 집이야기》 등은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북돋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200일전투에서는 다음으로 함북도북부피해복구전투에 나라의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기적적승리를 안아왔다.

주체105(2016)년 8월말 9월초에 함북도지구를 휩쓴 태풍으로 인한 큰물피해는 해방후 처음으로 되는 대재앙이였다. 무더기비와 돌풍으로 두만강은 위험수위보다 2.5배나 높아져 하나의 전쟁을 치른것과 맞먹는 파국적인 후과를 초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들이 당한 불행을 하루빨리 가서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조성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로 전환시키고 재해지역을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천지개벽시킬 중대결단을 내리시였다.

함북도북부피해복구를 위한 비상회의가 열리고 중앙지휘부, 현장지휘부가 조직되었으며 피해복구전투전반을 힘있게 내밀기 위한 지휘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다.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물동들을 최우선적으로 실어나르며 피해지역의 파괴된 철길들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결사전이 벌어졌다.

려명거리, 삼지연지구, 고산과수종합농장, 세포지구축산기지, 황해남도물길 등 중요대상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 돌격대원들을 비롯한 강력한 건설력량이 피해복구전선에 급파되었다.

한지에 나앉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비롯하여 빨감과 침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을 시급히 보장해주고 치료대들이 파견되어 예방치료대책을 세우면서 필요한 의약품들을 보내주었다.

함북도북부피해복구에 전당, 전군, 전민이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중대조치가 취해진 때로부터 불과 40여일만에 경흥군에서 첫 승전포성이 터져올랐고 천만군민의 심장이 하나로 맥동치는 속에 불과 두달 남짓한 기간에 1만 1 900여세대의 살림집과 100여동의 공공건물이 일떠서 대재앙이 휩쓸었던 북부피해지역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진감하게 되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총결기, 총매진하여 6월 1일부터 전개하여온 200일전투는 12월 15일 승리적으로 결속되었다.

력사에 류례없는 큰물피해를 입은 함북도북부지역 인민들을 위하여 나라의 인적, 물질,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는 전대미문의 복구전쟁을 치르고도 200일전투의 각방면에서 방대한 전투목표를 앞당겨 점령한것은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국력을 시위하는 장쾌한 기적적사변이었다.

200일전투의 승리를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결코 평화로운 환경에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가 잘살고 강대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예상치 않았던 자연의 대재앙은 엄중한 난국을 조성하였다.

200일전투과정에 이룩된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며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위대한 자강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였다.

정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진행한 200일전투는 제국주의반동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가리울수도 막을수도 없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었으며 당 제7차대회정신을 견결히 보위하고 최악의 역경속에서 최상의 승리를 쟁취한 력사적인 전투로 우리 당 력사와 조국청사에 길이 새겨질것이다.

실마리어 200일전투, 자력자강